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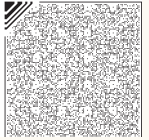
삶의 힘을 키우는

# 따뜻한 경북교육

2025 MARCH

Vol.122





# 둥지 떠나는 날

박수열 / 석보초등학교 교장

별써 둥지를 떠난다고?  
그래 날갯짓할 때도 되었지!

언제나 파란 마음으로 안아준  
너는, 넓은 바다를 닮을 거야

언제나 열린 가슴으로 다가온  
너는, 높은 하늘을 품을 거야

언제나 별빛처럼 반짝이던  
너는, 넓은 우주를 안을 거야

아~  
선생님은 언제 졸업하냐고?

걱정 마  
너희들이 세상의 무지개가 되는 날까지  
둥지를 지킬 테니까.



래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병아리들, 이렇게 멋지게 자랐어요!



학교는 사라져도, 우리의 추억은 영원해!  
원송초등학교의 마지막 졸업식



새로운 출발, 입학 축하합니다.

삶의 힘을 키우는

# 따뜻한 경북교육



## 표지이야기

51년 만에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 영덕도서관으로 놀러와!

발행일 2025. 3  
발행처 경상북도교육청 소통협력관  
발행인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  
총괄 소통협력관 홍중선  
기획 홍보담당 장학관 강휘구  
편집 주무관 서옥란  
주소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연락처 054)805-3063  
누리집 www.gbe.kr  
디자인/인쇄 대성광고기획 053)812-2777

따뜻한 경북교육 소식에 대한 원고와 기사를 기다립니다.  
홍보하고 싶은 사례, 학교 소식, 미담이 있으신가요?  
교직원이나 학부모 글·사진·그림 등을 소식지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seokok7@gbe.kr ☎ 054)805-3063

## 경북교육 꾸미기

외국인 유학생, 경북 직업계고에서 꿈을 펼치다	04
영덕도서관, 미래형 도서관의 표준을 만든다	06
100%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경북온라인학교가 정식 개교합니다	08
생명사랑센터, 학생의 건강한 마음을 지원합니다	10
'시 비서 꾸러미'로 선생님을 학생결으로	12

## 교육현장 이야기

유, 초, 중, 고 교육현장 이야기	14
---------------------	----

## 경북아이 뽐내기

성주중앙초 태권도부, 전국대회서 금3·동2 쾌거	16
옥산초, 전국유소년소프트테니스대회서 빛나는 성과	
상주공업고, 2024년에도 명품 취업을 일구다	17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5년 연속 경북 직업계고 취업률 92%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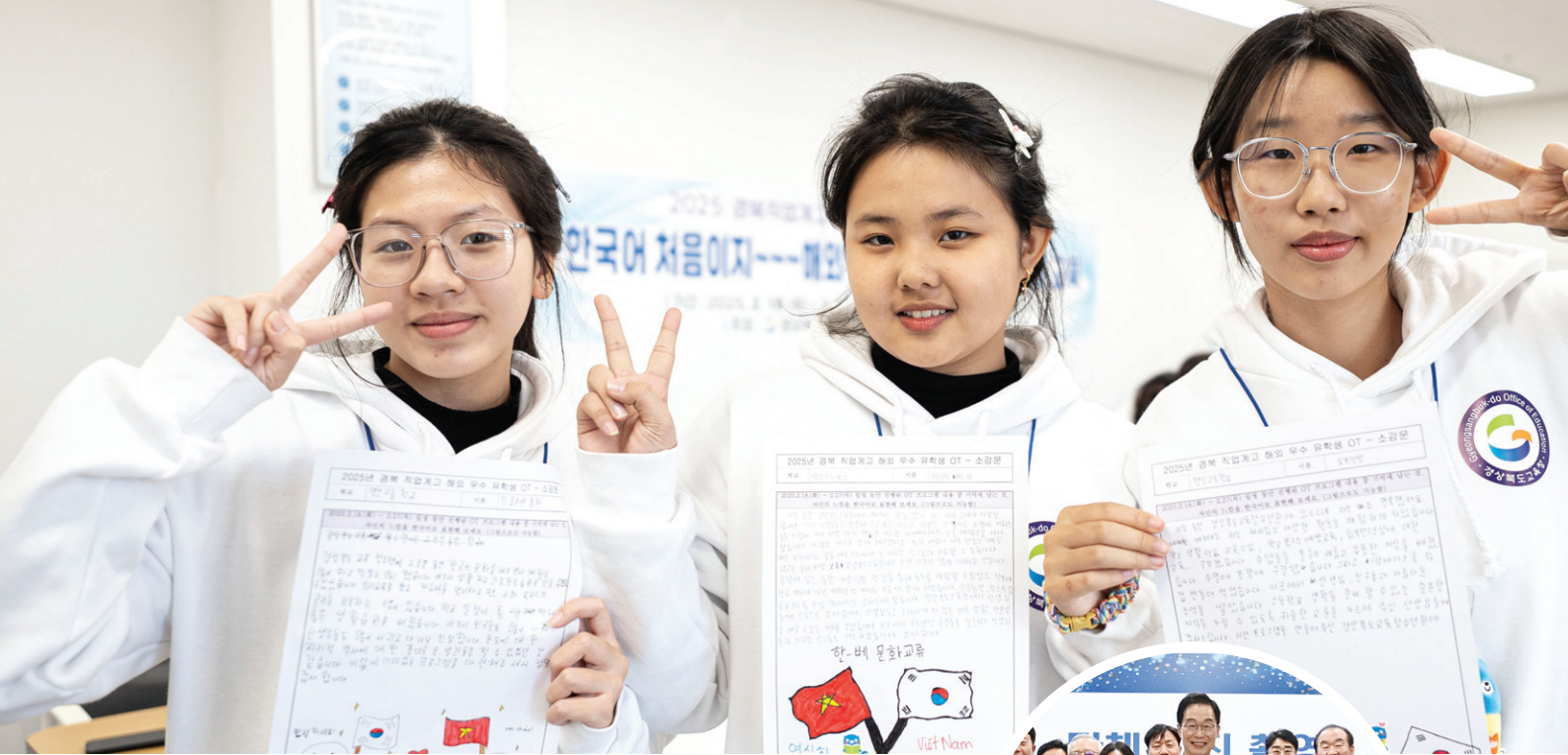
## 공감 더하기

세상과 더 가깝게,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소리를 선물하다	18
합창의 감동을 전하는 봉꽃송이 청소년 합창단	20
27년 차 수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22
창용쌤의 행복 필사	24

## 생생정보 나누기

대학입시, 경북진학지원센터에서 준비하세요	26
우리 가족캠핑 여기 어때?	28
우리말을 더 쉽게! 공공언어 순화 활동	30

	YouTube	경상북도교육청 맛콜머쿨TV	
	Instagram	경상북도교육청	
	NAVER 블로그	경상북도교육청	
	facebook	경상북도교육청	



# 외국인 유학생, 경북 직업계고에서 꿈을 펼치다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특별한 첫걸음

경북교육청은 2월 19일, 영덕군에 있는 해양수련원에서 2025학년도 직업계고등학교 외국인 유학생 전형에 최종 합격한 4개국 69명의 해외 우수 유학생들을 맞이하는 오리엔테이션 입소식을 개최했다.



## 2025학년도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입학 현황

학교명	국 가	인원(명)
한국해양마이스터고등학교	인도네시아	6
의성유니텍고등학교	태국	7
신라공업고등학교	베트남	14
경주정보고등학교	베트남	14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베트남	8
명인고등학교	베트남	6
한국국제조리고등학교	몽골	6
한국철도고등학교	몽골	8
전 체	4개국	69

이번 유학생들은 지난해 선발된 1기 48명에 이어 두 번째로 경북 직업계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이다. 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주한베트남대사관 관계자, 의성군 및 관련 기업체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유학생들의 원활한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9박 10일간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기초 교육, 직업계고에 대한 이해 교육, 한국과 세계 문화 이해 교육, 학교생활 안내,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익히고 학교 적응을 준비할 수 있었다.



### “한국어도 익히고, 미래도 준비합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학생들은 유학 생활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전했다. 베트남 출신 판 칸린(16) 양은 “처음엔 한국어가 어려웠지만, 경북교육청의 지원과 친구들의 도움으로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라며, “특히 학교폭력 예방, 금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이 인상 깊었고, 한국에서 먹는 급식도 큰 즐거움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도티 비치 응옥 양 주한베트남대사관 과학기술참사관은 “한국어로 소통하며 국가 기술 자격증까지 취득한 1기 유학생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라며, “수준 높은 직업교육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유학생의 정착을 도와준 경북교육청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경북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각자의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과정 운영, 문화 체험활동 제공, 유학생 전용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입소식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는 “경북교육청이 선발부터 취업까지 단계별로 안내하는 유학생 가이드북을 외국인 근로자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라며, “우수한 글로벌 기술 인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북에서 시작된 외국인 유학생들의 꿈이 글로벌 기술 인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어, 지역의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영덕도서관, 미래형 도서관의 표준을 만든다

## 영덕의 새로운 명소, 영덕도서관

영덕군의 인구는 약 3만 2천 명이지만, 2024년 10월 28일 개관한 경상북도교육청 영덕도서관은 단 2개월 만에 약 6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지역의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 잡았다. 1973년 개관 이후 51년 만에 확장·이전한 이 도서관은, 지역민과 학생들의 숙원이었던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선진 도서관을 벤치마킹하여 ICT 기술과 혁신적인 공간 디자인을 적용한 영덕도서관은 총 사업비 143억 2,400만 원을 투입해 최신식 시설로 조성되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177.1㎡ 규모로 건립된 이곳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진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지식과 문화를 잇는 열린 공간

영덕도서관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어울리도록 설계된 복합문화공간이다.

- 1층: 어린이자료실과 유아자료실을 마련하여, 아이들이 편안하게 책과 친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스마트도서관을 운영하여 도서 대출이 더욱 편리해졌다.
- 2층: 지역민과 학생들을 위한 강의실, 동아리실, 다목적 홀, 스마트워크부스가 배치되어 있어 다양한 평생 교육 프로그램과 독서문화 활동이 이루어진다.
- 3층: 종합자료실1, 미디어 라운지, 독서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바람의 언덕' 야외 테라스가 조성되어 있다.
- 4층: 연구와 학습을 위한 종합자료실2, 열람실,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 있다.

도서관 내부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라운지형 공간으로 설계되었으며, 스터디룸을 마련하여 학습, 토론, 개인 연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미래형 도서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영덕도서관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VR 체험실, 콘텐츠 창작실, LP 감상실 등을 새롭게 도입하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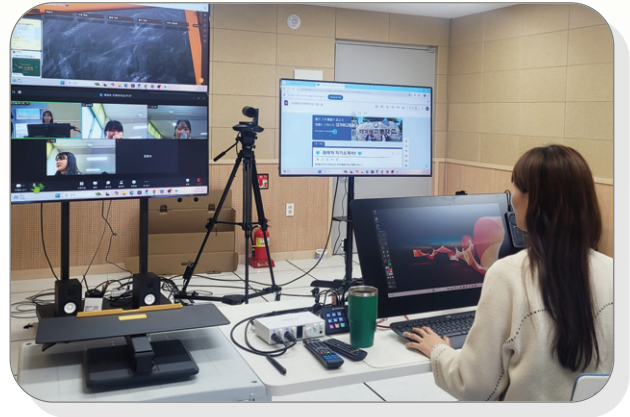
특히 동해선 철도 개통으로 영덕의 접근성이 향상됨에 따라, 영덕도서관은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광객과 방문객들에게도 새로운 문화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지역 도서관을 넘어, 독서·문화·관광이 결합한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영덕도서관은 독서 활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의 중심적인 문화 허브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100%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 경북온라인학교가 정식 개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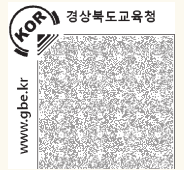


## 01

### > 고교학점제 시행과 경북온라인학교의 필요성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개설에 대한 부담과 학교별 교육과정 차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학교에서는 전공 교사가 부족해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은 2025년 3월 1일 경북온라인학교를 정식 개교하였다. 경북온라인학교는 물리적인 학교 공간 없이 온라인을 통해 수업을 운영하며, 개별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더욱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개별 학교의 과목개설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 02

## > 경북온라인학교의 교육과정과 운영 방식

경북온라인학교는 주문형 과정과 지정형 과정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주문형 과정은 개별 고등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요청하면 온라인학교에서 개설하는 방식이며, 지정형 과정은 온라인학교에서 미래 사회 변화와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강좌를 개설하는 방식이다.

온라인학교의 특색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기술 관련 과목과 공동체적 가치 함양을 위한 과목으로 나뉜다.

- 미래 기술 관련 과목: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과 미래 사회, AI 프로그래밍 기초
- 공동체 가치 과목: 환경과 인간 생활, 문화 다양성의 이해, 환경 보호

학생들은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개인의 관심사와 진로에 맞춘 심화 학습이 가능하다.

# 03

## > 시범 운영 성과와 정식 개교

경북온라인학교는 2024년 3월부터 경산고등학교 내에 임시 스튜디오 10실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1학기에는 64개 강좌에 6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2학기에는 68개 강좌에 80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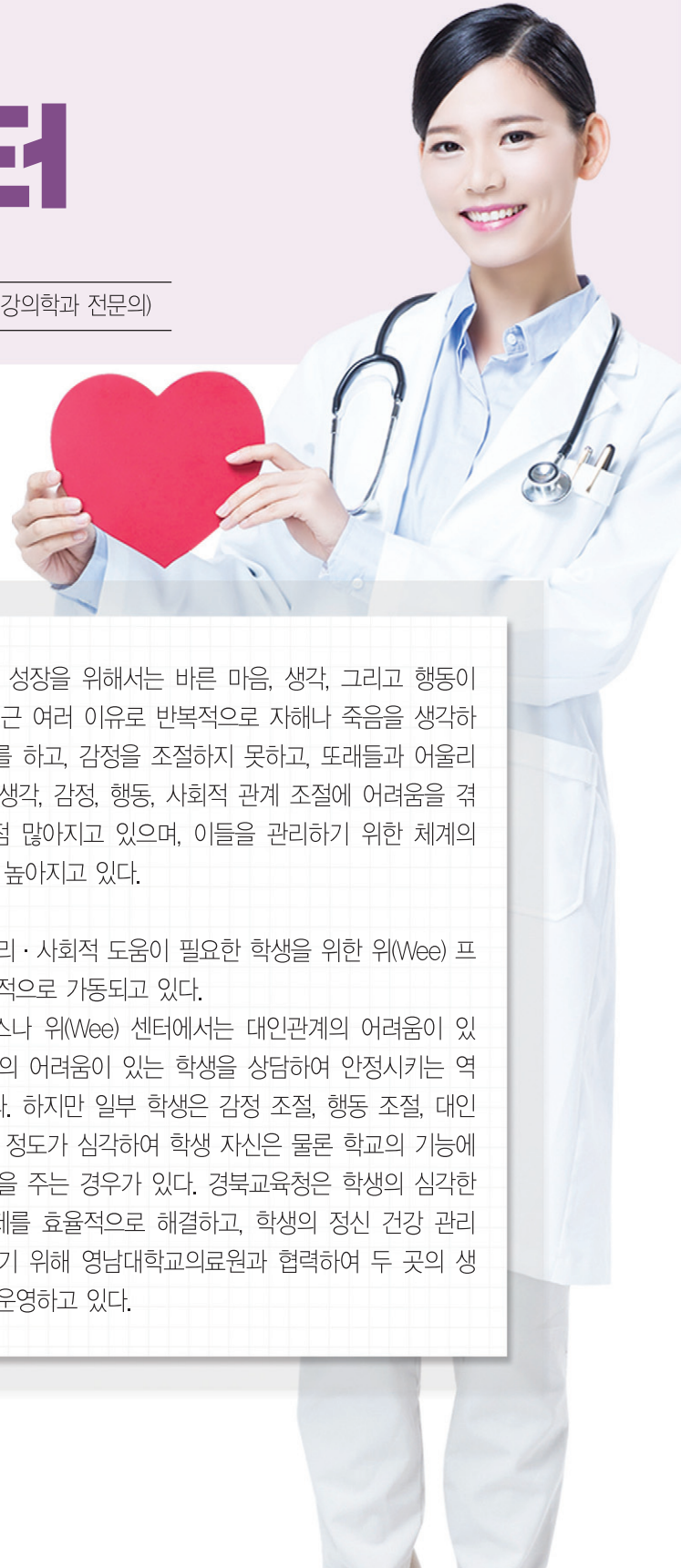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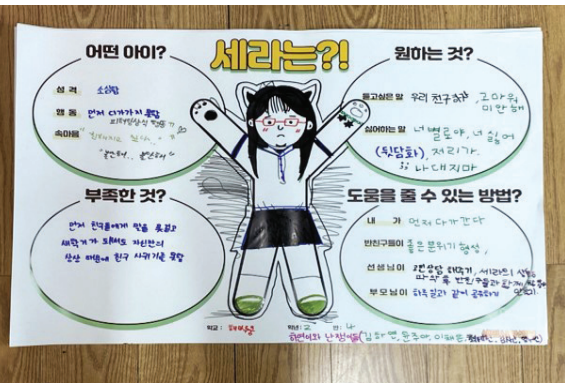
2025학년도 1학기 교육과정 수요 조사 결과 78개 강좌에 800여 명의 학생이 신청하면서 경북온라인학교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산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온라인 스튜디오 6실, 콘텐츠 제작실, 온오프라인 강의실 및 대회의실 등 총 10개의 교육 시설을 구축하였다.

또한 우수한 강의 운영을 위해 전임 교원 5명을 공모하고, 기간제 교사 3명 및 외부 강사 20여 명을 추가로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북온라인학교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폭넓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2025년 3월 정식 개교를 맞이한 경북온라인학교가 학생 맞춤형 교육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생의 건강한  
마음을 지원합니다.

# 생명사랑센터

서완석 / 경북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본부장(영남대학교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바른 마음, 생각, 그리고 행동이 필수적이다. 최근 여러 이유로 반복적으로 자해나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 시도를 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등 생각, 감정, 행동, 사회적 관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심리·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위(Wee) 프로젝트가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위(Wee) 클래스나 위(Wee) 센터에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있거나 감정조절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상담하여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생은 감정 조절, 행동 조절, 대인관계 어려움의 정도가 심각하여 학생 자신은 물론 학교의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의 심각한 정서 행동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학생의 정신 건강 관리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영남대학교의료원과 협력하여 두 곳의 생명사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생명사랑센터는 병원형 Wee센터와 학교방문거점센터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 정서, 행동, 감정조절 문제가 심각하여 학교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학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학생이 일차적인 대상이다. 의뢰된 학생, 학부모, 교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학생의 문제를 일차적으로 파악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교수인 센터장, 본부장과의 사례 회의를 통해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파악, 상담에서부터 입원 치료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학생, 학교, 학부모에게 설명하고 실행하는 기관이다. 의뢰된 학생에 대해서는 추후 관리를 통해 학생 상태의 안정 여부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정서 행동 조절에 문제가 심각한 학생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생명사랑센터는 전국 최대 인원인 17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단을 보유하고 학교가 요청하면 전문의 자문단은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위기 대응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마음 돋보기는 전문의가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서 학생의 문제를 다각적 관점에서 협의하고 효율적인 개입 방법을 제안하는 활동이다. 마음 돋보기 활동을 통해 많은 학부모는 학생에 대한 오해를 풀고 상담이나 치료에 협조하고 있다. 마음 건강 Talk, Talk는 학교 현장에서 전문의와 교사가 함께 학생문제를 고민하고 사례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활동이다.

교육부에서 2024년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의 영역과 역할을 제시한 후 학생의 사회정서교육은 교육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생명사랑센터는 학생의 사회정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마음 건강 증진 프로그램(MAP)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MAP은 자살, 자해, 분노 조절, 또래 관계, 스트레스 관리 등 학생 마음 건강의 핵심 영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이 중심이 되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활동이다.

생명사랑센터는 예방-진료-치료-사후관리까지 '경상북도교육청 마음 건강 위기 지원 Project HOPE'와 맥을 같이하며 폭넓은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앞으로도 건강한 학교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



### 생명사랑 남서부센터

전화: 053-218-1396  
이메일 주소: love1396@ymc.yu.ac.kr  
(경산, 고령, 구미, 김천, 문경, 봉화, 상주, 성주, 안동, 영주, 예천, 의성, 칠곡)

### 생명사랑 동북부센터

전화: 054-610-1396  
이메일 주소: love1396\_2@ymc.yu.ac.kr  
(경주, 영덕, 영양, 영천, 울릉, 울진, 청도, 청송, 포항)

# ‘AI 비서 꾸러미’로 선생님을 학생 곁으로



새 학년을 앞두고, 경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공하는 ‘AI 비서 꾸러미’가 학교 현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꾸러미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학생 교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적인 도구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 지원을 제공한다.

이번 AI 비서 꾸러미는 경북교육청 인공지능 연구소(G-AI Lab)가 개발했으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지원하는 ‘학교자율시간 올인원’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기능으로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용 승인 신청서 및 나이스(NEIS) 업로드용 진도표를 자동으로 생성해 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새 학년 준비 주간을 맞아 더욱 유용한 기능도 포함되었다.

- ‘업무계획서 작성 도우미’: 연간 업무 계획 수립을 지원해 시간 절약
- ‘개념 기반 교육과정 챗봇’: 교육과정 설계 지원
- ‘예산 활용 계획 계산기’: 학교 재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

이뿐만 아니라, 상담 업무를 지원하는 ‘리얼상담’ 프로그램도 AI 비서 꾸러미에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은 가상의 학부모, 학생, 교사와의 AI 상담 기능을 제공해 교사들이 더 효과적으로 상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가정통신문 작성봇’
- ‘유아 놀이 관찰 기록’
- ‘학교생활 갈등 판결문’

등 교사의 상담 및 기록 업무를 지원하는 다양한 AI 기반 웹앱도 함께 제공된다.

경북교육청 인공지능 연구소(G-AI Lab)는 2022년 설립 이후 40여 종의 AI 기반 웹앱을 개발·보급하며, 교사들의 교수·학습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

경북교육청이 준비한 AI 비서 꾸러미를 통해,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더욱더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 SCHOOL NEWS •

즐거운 요리 체험 활동

의곡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정영숙)은 2월 7일, 학부모와 교직원이 함께하는 요리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아동요리지도사의 설명을 들으며, 백설 공주 오므라이스와 사자 미트볼 스파게티를 만들었고, 아이들은 햄버거 만들기 체험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부모들은 정성이 담긴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며 가정에서도 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한, 원아들은 자신이 만든 햄버거를 간식으로 먹으며 평소에 잘 먹지 않던 채소도 맛있게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눈보라와 추운 날씨 속에서도 진행된 이번 요리 체험 활동은 학부모, 교직원, 원아들에게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의곡초, 경북 글로벌 교류단 선정



의곡초등학교(교장 정영숙)는 1월 17일부터 25일까지 경북 글로벌 교류단 미국 방문 국제교류 활동에 참여했다. 이번 교류는 경북교육청 주관으로 경북 내 유일한 초등학교로 선정되어, 5학년 학생 5명이 참가했다.

학생들은 LA교육지구 내 초등학교 4곳을 방문하여 사물놀이 공연, 버디 매칭, 공동 수업 등을 통해 현지 학생들과 소통하며 우정을 쌓았다. 또한, 스탠포드대, UC 버클리, UCLA 방문, 구글·애플 센터 견학 및 현지 한국인 직원의 진로 특강 등 미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금문교, 유니버설 스튜디오, 캘리포니아 과학관 등 문화탐방

과 주LA 한국교육원 방문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시차 적응과 낯선 환경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류 활동을 통해 국제 감각을 키우고 경북교육의 우수성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 • SCHOOL NEWS •

### 남산중, 교원 AI 자격증반 운영으로 미래 교육 대비



남산중학교(교장 김주영)는 AI·정보 중심학교 및 지역 AI 거점학교로서 교원의 AI 활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원 AI 자격증반을 운영하여 본교 교사 5명이 KT AICE 퓨처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KT AICE(AI Certificate for Everyone)는 국내 최초 인공지능 활용 능력 검정시험으로, 남산중 교사들은 블록 코딩 기반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프로그래밍 기초를 학습했다. 이를 통해 음성 인식, 번역, 공공데이터 분석 등 AI 기능을 각 교과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했다.

참여 교사들은 영어-한글 사전 데이터 활용 통역 및 번역

기능 적용, 탄소 중립과 에너지 데이터 분석 모델 제작 등 다양한 AI 기반 교수법을 구상하며 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주영 교장은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AI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미래 교육을 밝게 한다”라고 밝혔다.

###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독일 바이오 선진기술 연수 실시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교장 정미정)는 1월 5일부터 16일까지 10박 12일간 독일 바이오 선진기술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글로벌 바이오 기업 Sartorius와 협력하여 2학년 학생 5명을 대상으로 국내(3일)와 국외(12일)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은 국내에서 GMP 이론과 실무 교육을 받은 후, 독일 Sartorius 본사와 연구소에서 세포주 개발 공정과 장비 운용을 직접 경험했다. 또한 X-LAB 대학교에서 분자생물학 실험을 시행하고, Boehringer-Ingelheim을 방문해 바이오의약품 개발 과정을 학습했다.

참가 학생들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유익한 경험이었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정미정 교장은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해 해외 연수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성주  
중앙초

**성주중앙초 태권도부,  
전국대회서  
금3·동2 쾌거!**

성주중앙초등학교(교장 김동섭) 태권도부가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한국초등연맹 개인선수권 전국초등학교태권도대회'에서 금메달 3개(안승현, 김수현, 이예림)와 동메달 2개(박새론, 원채윤)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6학년 김수현 선수는 "마지막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 기쁘며, 중학교에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정민욱 코치는 "선수들의 훈련 성과가 빛을 발해 자랑스럽다"라며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목표로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주중앙초는 태권도 휴게실 공사를 마무리해 3월부터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옥산초

**옥산초,  
전국유소년소프트테니스대회서  
빛나는 성과!**

옥산초등학교(교장 김종중) 소프트테니스부가 1월 24일 전북 순창에서 열린 '제66회 전국유소년소프트테니스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여자초등부 단체전에서 강태이, 고가경, 김민서, 박예원 학생이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5학년 개인 복식에서도 강태이·고가경 조가 금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김민서·박예원 조(4학년 개인 복식)와 박서경 학생(6학년 개인 복식)이 은메달, 박서경 학생은 개인 단식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종중 교장은 "한 해 동안 꾸준히 훈련하며 값진 성과를 거둔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의 성장을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상주  
공업고

**상주공업고,  
2024년에도  
명품 취업을 일구다!**

상주공업고등학교(교장 류희수)가 2024년에도 공무원 44명(경북 24명, 경기도 4명, 충남 4명, 충북 2명, 부산 2명, 강원도 2명, 경남 2명, 서울 1명, 인천 1명, 전북 1명, 전남 1명) 합격자를 배출하며, '공무원 사관학교'의 명성을 이어갔다. 특히, 13년 연속 공무원 최다 합격(누적 337명)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고졸 공무원 배출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았다. 또한, 공기업 4명(한국농어촌공사 2명, 한국도로공사 2명), 부산관 21명(해병대 13명, 육군 6명, 공군 2명), 해외 취업 3명(호주 3명), 우수기업(15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뛰어난 취업 성과를 거뒀으며, 전국기능경기대회 목공 부문에서 금메달을 수상하며 기술 교육의 우수성도 입증했다. 류희수 교장은 "학교의 체계적인 취업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노력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상주공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개척을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하며, 명품 취업을 이끄는 선도 학교로서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  
바이오  
마이스터고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  
5년 연속 경북 직업계고  
취업률 92% 달성!**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정미정)가 5년 연속 경북 직업계고 높은 취업률(92.2%, 2025. 2. 1. 기준)을 달성하며 '취업 명문고'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올해 졸업생 중 10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입사했으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미약품, 코오롱생명과학, 메디포스트(주), (주)유바이오로직스, 건일제약(주), 제일약품(주) 등 다양한 우수기업에도 취업했다. 또한, 바이오 산업 맞춤형 교육과 독일 연수 등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정미정 교장은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밝혔다. 경북바이오마이스터고는 과정 평가형 자격제도를 통해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합격률 92%를 기록하며, 실무 중심 교육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 세상과 더 가깝게,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소리를 선물하다

이나영 / 안동교육지원청 특수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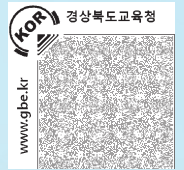
어떤 이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꼭 듣고 싶은 소리일 수도 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 소리, 빗방울이 툇툇툇 떨어지는 소리, 친구들의 노랫소리처럼 우리 주변에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닌 소리가 가득하다.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소리는 단순한 청각적 경험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돕기 위해 경북교육청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는 손상된 달팽이관을 대신해 청신경을 직접 자극하는 전자장치로, 귀 내부에 삽입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의료기기이다. 이 기기는 귀 뒤쪽의 뼈에 장착되며, 시술 후에도 지속적인 청력 관리와 장치 교체가 필요하다.

보청기는 난청이 있는 사람이 더욱 선명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기이다. 주변 소리를 증폭해 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개인의 난청 정도와 환경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귀에 거는 형태(귀걸이형), 귓속에 넣는 형태(귀속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안경형 보청기도 있다.





△△이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나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다. 어머니는 홀로 △△이를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는 1살 때 오른쪽 귀에 인공와우 시술을 받았지만, 이후 10년 넘게 외부기기를 교체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기존 제품이 단종되어 고장이 나도 수리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계속 사용해야 했다.

3년 전 자비로 왼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했지만,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했다. 학습과 학교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곤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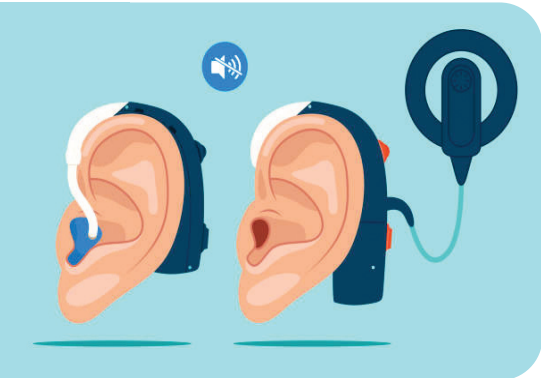
그러던 중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 맞춤형 지원을 신청했고, 새로운 인공와우 외부기기로 교체할 기회를 얻었다. △△이는 "이제는 더 많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중학교 생활이 기대된다"라며 밝은 모습을 보였다.

유치원생인 ○○이는 태어나자마자 청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인공와우 시술을 권유받았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쳐 결국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었다.

보청기를 통해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지만, 또래 친구들의 말소리를 정확히 알아듣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친구들이 보청기를 착용한 귀를 만지거나 호기심을 보일 때면 ○○이는 부끄러워하며 위축되곤 했다. 수업이나 놀이 활동 중에도 전자기기 소음이 들리면 귀가 아프다며 힘들어하기도 했다.

○○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청력 문제로 인해 중요한 언어 발달 시기를 놓칠까 봐 걱정이 컸다. 아이의 성장 속도에 따라 지속해서 기기를 교체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등 다양한 지원을 받더라도 보청기 교체 비용이 만만치 않아 고민하던 중, 특수교사로부터 인공와우 시술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보청기를 교체한 후, 아이의 새로운 생활은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새 보청기는 크기가 작아 착용감이 한층 좋아졌으며, 원거리 소리까지 잘 들려 ○○이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지시를 더욱 정확히 따라갈 수 있었다. 또래 친구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져 상호작용이 늘었고, 통합학급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어머니는 "아이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한결 안심된다"라며 기뻐했다.



경북교육청은 학습과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60명의 학생이 인공와우 시술, 내·외부 장치 교체, 보청기 구입 및 교체 지원을 받았다.

앞으로도 청각장애 학생들이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고 학습 능력을 키우며, 사회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소중한 소리를 놓치지 않고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는 따뜻한 특수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 합창의 감동을 전하는 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

## 문화 예술의 불모지 봉화에 피어난 꽃송이

문화 소외 지역인 봉화는 대도시에 비해 문화와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이 열악하다. 특히 전시나 공연 관람 기회는 물론 청소년이 직접 경험하고 배울 기회는 더욱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10월 봉화교육지원청(단장 이영록)이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일환으로 봉꽃송이 청소년 합창단을 창단하였다. 이제 봉화 지역의 초·중학생이라면 누구나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36명의 단원이 참여 중이다.



## 함께 어울려 만들어내는 하모니의 매력

매주 목요일 오후 6시가 되면 봉화교육지원청에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진다. 봉화 곳곳에서 합창에 대한 기대와 설렘을 안고 모여드는 아이들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밤 8시 30분까지 연습을 하고 있다. 음악 전공자로 구성된 지휘자, 트레너, 피아노 반주자 선생님들께 합창 호흡법, 발성 기초를 배우면서 합창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2박 3일 합창 캠프와 매주 토요일 정기연습을 통해 소프라노, 알토 성부로 나누어 파트별로 만들어내는 하모니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작년 12월 계명아트센터에서 뮤지컬 '명성황후'를 관람하고 올해 1월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을 찾아 오스트리아 빈소년합창단 내한 공연을 단체 관람하기도 하였다. 특히 빈소년합창단과 함께 한 기념 촬영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었다.

## 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 새롭고 더 넓은 세상을 꿈꾸다

합창단을 하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할 새롭고 더 넓은 세상이 단원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 3월부터 지역의 각종 행사 초청 공연과 봉화교육지원청 주관 행사 음악회 그리고 상반기 중 교육발전특구사업과 연계한 베트남 해외 공연 및 합창경연대회 출전 등을 계획 중이다. 봉꽃송이 청소년합창단의 대표곡인 '다 잘될 거야' 제목처럼 앞으로 행보에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합창단으로 성장해 나가길 소망한다.



# 27년 차 수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최은희

영남대학교 영천병원  
인공신장실 수간호사



## Q 간호사를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아이러니하게도 학창 시절 내내 꿈꿨던 직업은 간호사가 아닌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교대 입시에서 낙방한 후 재수를 하던 중, 스무 살 설날에 친척들을 뵙게 되었는데, 다들 한목소리로 '간호사도 괜찮지 않겠니?'라며 간호학과 진학을 권유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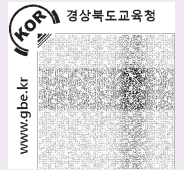
딸부잣집에서 자라다 보니 어머니께서도 딸 중 한 명은 간호사가 되기를 바라시며 분위기를 몰아가셨고, 결국 '부모님이 저렇게 원하시니 일단 원서는 내보자'라는 마음으로 간호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죠. 그렇게 싱겁게 간호사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처음엔 '간호사 면허증도 났으니, 2년 정도만 병원에서 일하고, 그 뒤엔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누구도 뭐라 하

지 않겠지'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게 나의 적성에 맞았는지, 천운인지 지금까지 잘 버티며 부모님 덕분에 어느덧 27년 차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 Q 간호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간호사가 되려면, 먼저 간호학과에 입학해 4년 동안 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병원 실습을 모두 마쳐야 해요. 그 후에는 매년 1월에 치러지는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하죠. 이 시험을 통과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여하는 간호사 국가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면허증을 꼭 취득해야만 정식 간호사로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 Q 간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간호사라는 직업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높은 취업률이 아닐까 싶습니다.

병원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보건교사, 산업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연구원, 보험공단, 보험회사, 전문간호사, 요양센터 운영, 해외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많아요. 이처럼 직종이나 활동 범위가 넓다는 것도 큰 매력이지요. 또 하나의 장점은 간호사로 잠시 일하다가 다른 직업을 갖거나 공부,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잠깐 임상을 떠났다가도, 다시 일을 시작하려면 타 직종보다는 더 쉽게 직장이나 일을 구할 수 있는 전문성입니다.

2024년도에 「간호법」이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법은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개선, 간호사 전문성 강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간호사로서 더 안정적이고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 Q 남자 간호사도 많이 늘어났나요?

27년 전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한 학년에 남학생이 한 명뿐이었고, 어떤 학년은 아예 남학생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남학생 간호사는 아주 귀한 존재였죠. 그런데 요즘은 간호학과에서 남학생 비율이 100명 중 20~30명에 이를 정도로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취업률이 높고, 남자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면서 남자 간호사 수가 증가한 거 같아요. 현재 우리 병원에서도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같은 부서는 남자 간호사의 비율이 30~50% 가까이 되는 걸 보면, 그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걸 새삼 실감할 수 있어요.

### Q 간호사가 된 걸 후회한 적은 없나요?

어떻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까 싶지만, 그래도 돌아켜보면 이 직업 자체를 크게 후회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 교대근무를 하면서 육아까지 병행해야 했을 때였어요. 특히 밤 근무를 하러 집 현관문을 나설 때, 잘 놀던 아이가 제 바지를 붙들고 울며불며 “엄마 가지 마!”라고 할 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아이가 클 때까지 옆에서 내가 지켜 주는 게 맞는 걸까?’ 하며 잠시 망설이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고비를 잘 넘기고, 이제 그 꼬맹이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얼마 전 “엄마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든데, 일을 좀 쉬까?”라고 물었더니, “아니야 안 돼, 엄마가 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이 못하잖아. 계속 일 해야 해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일을 잠시 놓았다면 지금쯤 많이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Q 간호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모든 직업이 그렇겠지만, 특히 간호사는 직업의식이 뚜렷해야 해요. 환자를 그저 일로 생각한다면, 힘든 병원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더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그 간호사에게 간호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도 최선의 컨디션으로 회복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환자를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소중한 사람이자 **생명**으로 여기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간호한다면, 그만큼 보람도 크고 환자와 간호사도 모두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 창용쌤의 행복 필사



김창용  
농소초등학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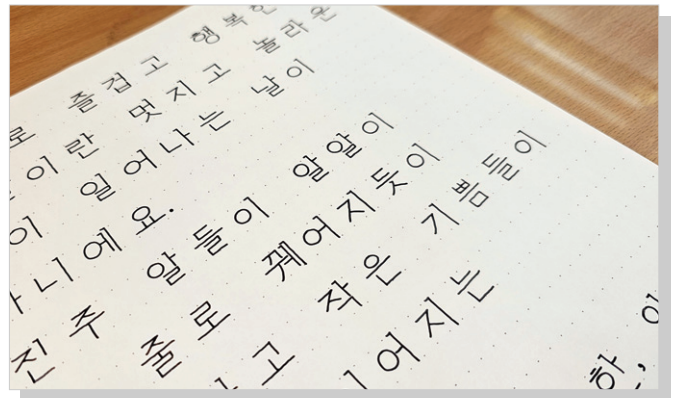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저는 농소초등학교에서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창용쌤 김창용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럴 때 좋은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가 곁에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꼭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서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면, 주변 환경이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적은 노력과 경험을 통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 힘을 키우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책을 읽는 것입니다. 책에는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깊은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마음에 남는 문장을 찾아 따라 쓰는 필사를 하면 생각이 넓어지고 감정을 정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때는 한 문장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막막한 고민 속에서 길을 찾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손으로 직접 따라 쓰는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래는 제가 올해 2월에 출간한 “창용쌤의 행복 필사 노트”에 담긴 50가지 문장 중 하나입니다.



[빨간 머리 앤] - 루시 모드 몽고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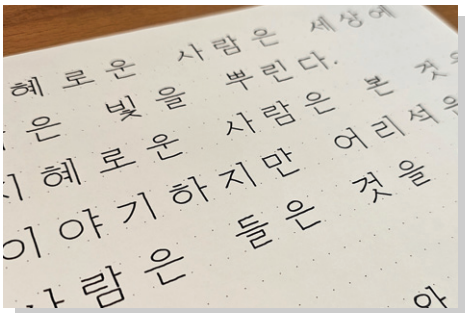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나날이란 멋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날이 아니에요. 진주알들이 알알이 한 줄로 꿰어지듯이 소박하고 작은 기쁨들이 조용히 이어지는 날들이에요. 웃을 수 있는 한,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느껴요.”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행복이 특별한 순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멋진 일이 있어야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작은 기쁨이 모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따뜻한 햇살을 느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질 때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한마디,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식사 시간,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만나는 순간처럼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행복이 됩니다.

힘든 날이 있더라도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 “오늘도 나름 괜찮은 하루였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결국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소소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쌓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작은 기쁨을 찾아보세요. 책 한 권을 펼쳐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탈무드]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슬기로운 자와 베타면 자연스럽게 현명해지고, 어리석은 자와 베타면 기필코 해를 입는다. 이미 끝나 버린 일을 후회하기 보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이 문장을 고른 이유는 우리가 진정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단순히 남이 말해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느끼며 자신만의 생각을 만들어 갑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고민하고 탐구하기보다는 들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반복할 뿐입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가까이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 속에 휩쓸리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문장은 우리가 후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일에 매달려 후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정말 후회해야 할 것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지 못한 것, 도전하지 못한 것, 그리고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입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 없이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원하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배움을 마주할 때는 단순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고 깊이 생각하며 자기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지혜롭고 넓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대학입시, 경북진학지원센터에서 준비하세요.

## 2026학년도 대입전형 일정 및 경북교육청 진학 지원 프로그램 안내


### 경북진학지원센터

2026 대입을 위한 새 학기 여정이 곧 시작된다. 대입 일정은 6월과 9월에 실시되는 모의평가를 포함한 수시모집 이전 기간, 수능이 있는 수시모집 전형 기간, 정시 및 추가모집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5학년도 고3 학생들은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통해 학습 방향을 점검하고 6월과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및 정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계획적인 대입 전략 수립을 위해 수험생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 대입 일정을 알아보자.


일정 구분	내용	월	일
수시모집 전 학력평가	전국연합학력평가(전 학년)	3월	26일(수)
	전국연합학력평가(3학년)	5월	8일(목)
	대수능모의평가(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1, 2학년)	6월	3일(화)
	전국연합학력평가(3학년)	7월	10일(목)
	대학진학경북박람회(구미코-구미)		12일(토)~13일(일)(1박2일)
	대수능모의평가(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1, 2학년)	9월	3일(수)
수시모집 및 수능	수시모집 원서접수	9월	8일(월)~12일(금)(3일 이상)
	전국연합학력평가(전 학년)		10월
	대학수학능력시험	11월	13일(목)
	수능성적 통지	12월	5일(금)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12일(금)까지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기간		15일(월)~17일(수)(3일)
	수시 미등록 총원합격 통보 마감		23일(화) 18:00까지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4일(수) 22:00까지		
정시모집	정시모집 원서접수	2월	29일(월)~12월 31일(수)(3일)
	정시모집 합격자 발표		2일(월)까지
	정시모집 합격자 등록 기간		3일(화)~5일(목)(3일)
	정시 미등록 총원합격 통보 마감		12일(목) 18:00까지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13일(금) 22:00까지
추가모집	추가모집		20일(금)~27일(금)
	추가모집 등록 마감		27일(금) 22:00까지

경북진학지원센터는 네이버밴드 ‘대학가는 길, 경북진학지원센터’에서 주요 대입 뉴스 및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입 설명회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대면 및 화상상담, 전화상담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북진학지원센터  
네이버밴드**



상담 신청  
**경북진학지원센터  
누리집**(최소 4일 전 신청)



문의:054-840-2255

대면상담	권역별 상설대입상담실에서 대면상담
화상상담	네이버 웨일 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 실시간 화상상담
전화상담	신청자의 개인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상담
권역별 상설 대입상담실 운영 장소	경상북도교육청 경북진학지원센터(안동) 2층 상담실 경상북도교육청 정보센터(경산) 2층 경상북도교육청 구미도서관(구미) 2층 경상북도교육청 영일도서관(포항) 2층

경북진학지원센터에서는 학부모의 대입 이해와 자녀 진학지도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면으로 진행되는 설명회, 학부모의 대입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비대면으로 대입 관련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연수, 대학 입학관계자 초청 및 기타 진학 관련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하는 박람회를 운영하오니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업명	일정	장소	내용	신청 방법
고등학교 학부모 대상 대입 설명회	2025. 3. 10.(월) 19시 2025. 3. 11.(화) 19시 2025. 3. 17.(월) 19시 2025. 3. 18.(화) 19시	안동고등학교 경북교육청문화원 경산교육지원청 경북교육청연수원	2025 대입의 이해 및 진학 방향 설계	경북진학지원센터 누리집
2025 학부모 진학지도 지원 원격연수	2025. 5~6(미정)	원격(비대면)연수	2026~27 입시분석 전형, 계열별 입시특징 등 몇 개의 강의로 구성	고교에서 학부모에게로 문자 안내 후 개별 신청
대학진학 경북박람회	2025. 7. 12.(토)~ 2025. 7. 13.(일)	구미-구미코	대학별 맞춤 상담 선생님과 함께하는 1대1 상담 특강 및 멘토멘티 프로그램 고1+2전용관	경북진학지원센터 누리집



# 우리 가족캠핑 여기 어때?

경북교육청은 도내 학생과 교직원 가족, 지역민을 위해 미활용 폐교를 활용한 세 곳의 오토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캠핑장은 자연과 어우러진 힐링 공간으로,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올해에는 우리 가족캠핑 여기로 떠나볼까?

## 영덕 오토캠핑장

- ▶ 위치: 경북 영덕군 영덕읍 창포길 2-11
- ▶ 특징: 옛 영덕야성초등학교 창포분교을 활용하여 조성된 캠핑장으로,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탁 트인 전망과 인근 관광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캠핑 사이트는 기존 15면에서 10면이 추가되어 총 25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기 및 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깨끗한 화장실과 샤워실을 제공하고 있다.
- ▶ 사이트 배치도
- ▶ 주변 관광지: 영덕 해맞이공원, 창포말등대, 블루로드 산책로, 강구항 등
- ▶ '함께하는 우리가족 캠프' 를 운영한다고 하니 참여해 보세요!



기수	기간	가정수	운영 프로그램	운영방법
제1기	4. 19.(토)~20.(일)	25가정	레크레이션, 어울림 한마당, 캠프파이어 등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공문 (가정통신문) 발송 후 신청서 접수
제2기	5. 24.(토)~25.(일)	25가정		
제3기	9. 27.(토)~28.(일)	25가정		
제4기	10. 18.(토)~19.(일)	25가정		

※ 일정 변동 가능

### 김천 오토캠핑장

- ▶ 위치: 경북 김천시 증산면 증산1로 163
- ▶ 특징: 옛 대덕중학교 증산분교를 활용하여 조성된 캠핑장으로, 산속에 위치한 조용한 환경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을 원하는 분들께 적합하다. 가족 단위의 캠핑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을 도모할 수 있다. 캠핑 사이트는 총 15면으로, 전기 및 수도 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며, 깨끗한 화장실과 샤워실을 제공하고 있다.
- ▶ 사이트 배치도
- ▶ 주변 관광지: 증산 수도계곡, 부항댐 출렁다리 등
- ▶ '가족 힐링 캠프'를 운영한다고 하니 참여해 보세요!



기수	기간	가정수	운영 프로그램	운영방법
제1기	4. 26.(토)~27.(일)	30가정	DIY 나무공예 만들기, 별자리 관측, 운동회 등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기관 공문(가정통신문) 발송 후 신청서 접수
제2기	9. 20.(토)~21.(일)	30가정		

※ 일정 변동 가능

### 포항 산누리 오토캠핑장

- ▶ 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 ▶ 특징: 옛 상옥초등학교 하옥분교를 활용하여 조성된 캠핑장으로,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자연 속에서의 캠핑을 즐길 수 있다. 데크로 이루어진 일반 캠핑 사이트 15면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이 데크 바로 옆에 있어 편리하다. 주변에는 하옥계곡이 있어 여름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 ▶ 사이트 배치도
- ▶ 주변 관광지: 하옥계곡, 내연산 보경사 등



### 이용요금/예약방법

시설별	사용기준	기준인원	사용료	비고
캠핑사이트(데크/쇄석)	1면/1일	4인	20,000원	전기, 수도사용료 포함

· 반환기준: 각 캠핑장 누리집 참고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캠핑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캠핑장 프로그램 운영시 공문으로 신청	공문으로 별도 안내
경상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그 가족 (단, 학생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함)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사용예약일 15일 전부터 예약신청 가능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사용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	사용예약일 5일 전부터 예약신청 가능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 우리말을 더 쉽게! 공공언어 순화 활동

— 오천중학교 '범넛미르하나' 동아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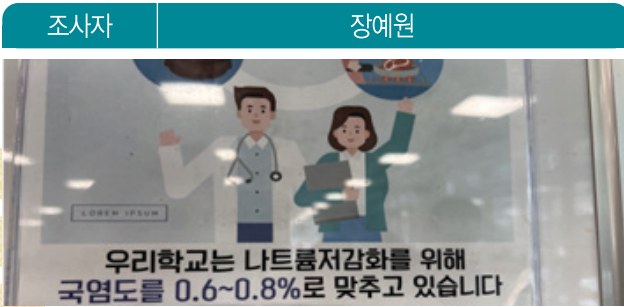
## (자료제공)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연구소

프랑스는 영어의 영향력이 커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자국어 지키기 위해 1994년 '투봉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공공기관, 법률 문서, 광고, 제품 설명서, 직장 내 규정 등에서 반드시 프랑스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프랑스어 번역을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이 외국어로 인해 정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치다.

이처럼 공공언어를 쉽게 바꾸는 활동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과도 연결된다. 공공언어가 지나치게 어려우면 일부 사람들은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오천중학교 '범넛미르하나' 동아리는 지난해부터 공공언어 순화 사전을 만들며 공공언어를 쉽게 바꾸는 활동에 나섰다. 학생들은 단순히 외국어나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다듬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멀리서 사례를 찾기보다 학교와 집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고민했다. 되도록 우리말을 사용하려 했으며, 적절한 우리말이 없을 때는 한자어를 함께 활용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는 계기를 가졌다. 그들이 만든 공공언어 순화 사전에는 어떤 표현들이 담겨 있을까?



출처	직접 찍었음(우리 학교 급식실 안내판)
바꿀 표현	나트륨 저감화
순화한 표현	소금 적게 먹기
순화가 필요한 이유	<p>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해서 영양사 선생님이 반찬의 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리려고 급식실 알림판에도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p> <p>그런데 '나트륨 저감화' 라는 표현이 바로 와닿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띄어쓰기도 안 되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나트륨이라는 외국어, 저감화라는 한자어 대신 '소금 적게 먹기'로 표현하면 보는 사람도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p>



출처	직접 찍음(고속도로)
바꿀 표현	화물차 라운지
순화한 표현	화물차 쉼터
순화가 필요한 이유	<p>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씻고 쉬 수 있는 공간이 휴게소에 있다는 것을 이번 활동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화물차 라운지였습니다. 라운지(lounge)의 뜻은 휴게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굳이 화물차 라운지라는 말을 쓸 필요 없이 화물차 쉼터라는 우리말을 사용하면 라운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도 화물차와 관련된 사람들이 쉬 수 있는 공간이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p>



출처	직접 찍었음(점심시간 급식실 안내판)
바꿀 표현	페스코
순화한 표현	생선까지
순화가 필요한 이유	<p>우리 학교는 급식 때 매월 1일 채식 식단을 운영한다. 채소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 우유나 요거트, 달걀, 생선까지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pesco vegetarian) 식단으로 나옵니다. 원래 채소를 많이 먹어왔던 우리나라가 서양에서 들어온 채식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관련된 단어도 그냥 다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계에 따른 이름이 다 다른데, 일단 학교에서 주는 '페스코'를 '생선까지'로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고기'는 안 나오겠다'라고 바로 느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부 다 바꾼다면 '채소만' - '우유까지' - '계란까지' - '생선까지' - '달걀까지' - '골고루' 정도로 바꿀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p>



출처	직접 찍음(아파트 주차장 안내문)
바꿀 표현	커넥터, 태깅
순화한 표현	연결선, 갖다 대기
순화가 필요한 이유	<p>아파트 전기차 충전기의 안내 문구인데 '커넥터', '태깅' 등의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커넥터'는 충전기와 차를 연결하는 선이니까 '연결선'으로 순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커넥터는 많이 쓰는 외국어이니 이해할 수 있는데 '태깅'을 사용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카드를 갖다 대라고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커넥터'와 '태깅'이 무슨 뜻인지 모를 것이고, 사람들이 뜻을 다 안다고 해도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사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p>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청년  
나부터 실천

 경상북도교육청  
Gyeongangbuk-do Office of Education